

수행승 노후 위해 노스님들 붓들다

선원수좌복지회 '간화선 중흥 위한 선서화전'

“선방에서 평생을 수행에 매진한 스님들이 늙거나 아플 때 아무런 보살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려는 다른 것 생각없이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이들을 뒷받침하는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남(南) 진제, 북(北) 송담’으로 불릴 만큼 수행이 깊기로 이름났지만 그림과 글씨를 밖으로 공개한 일이 거의 없는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松潭) 스님이 선서화 104점을 선뜻 전달하며 남김 없이 불도의 깨달음은 말이나 글로 전하지

공개된다.

이는 모두 선원 수좌들의 복지에 수익금이 쓰인다는 취지에 공감한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진 결과다.

선원수좌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은 “수행에만 정진한 수행승들은 평생을 신세질 일도, 신세져줄 일도 없이 살기에 정작 자신이 아프거나 늙었을 때 돌볼 이들이 없다”며 “선원수좌복지회의 뜻에 공감한 노스님들이 수행승들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국불교계의 거목 석정 스님의 경우 생전 스님들의 노후복지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림 기증을 약속했으며 스님의 입적 이후 선서화전 개최 소식을 들은 문도들이 십시일반 소장 그림을 모아 총 400점을 복지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취지에 스님들 외에도 불자로 알려진 이들도 대거 선서화전에 참여한다. 소치 허유, 미산 허형, 의재 허백련, 남봉 허건, 동강 정운면 등 11명의 당대 서화 거장들이 글과 그림 200여 점을 내놓았다.

의정 스님은 “스님의 치료비가 100~200만원일때는 모르지만 1000만원 넘어 가면 아무리 같은 문종이라도 선풍 나서는 이가 없는게 불교계 현실”이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선서화전이 열리는 기간에는 매일 오전 10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올바른 참선의 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법문을 진행한다. 중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고우 대원 도문 무어 설정 월탄 현기 혜국 스님 등 9명이 법사로 나선다.

특히 진제 스님의 경우 종단 공식 행사 외 최초로 서울에서 범문해 눈길을 끈다. 법회장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와 같이 조계사 앞마당에 3500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대령 법석(法席)으로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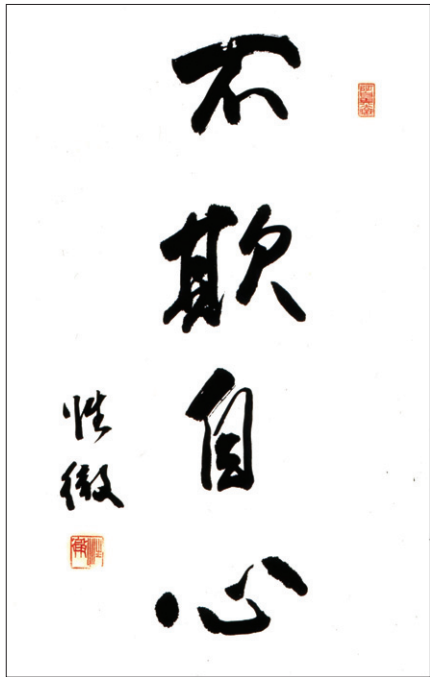
4월 24일~5월 2일 조계사 일대서 역대 중정 및 선승 서화 한자리에 회귀서화 등 총 834점 최대 규모 남농 등 거장 서화 200여 점 선보여 수익금은 수행승 복지에 사용

않는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전통에 따라 수행에만 매진해왔던 선승(禪僧)들이 후배 수좌들의 복지를 위해 붓을 들었다.

선원수좌복지회(대표이사 의정)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서화전’을 연다.

출품작으로는 경봉 청담 서울 성철 율하 해암 탄허 원담 석주 월산 스님 등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글씨와 그림 800여점이다.

역대 중정인 2대 청담, 5대 서용, 6·7대 성철, 9대 월하, 10대 해암, 13대 진제 스님의 선서화를 비롯해 ‘북전강 남향곡(北田岡 南香谷)’으로 불리는 전강 스님과 향곡 스님의 선서화도 근래에 드물게



성철 스님의 불기자서



송담 스님의 달마도

‘백발의 거장’ 소리연으로 다시 무대에

음악인 박범훈 씨 19일~20일 국립극장서 공연



음악인 박범훈 씨 19일~20일 국립극장서 공연

작곡가 박범훈(前중앙대총장·사진)씨가 ‘소리연(緣)’으로 대중들에게 다시 돌아왔다. 국립극악관 현악단 초대 단장, 중앙대 총장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역임을 백발의 거장 박범훈 씨가 국악 무대로 복귀한 것이다.

‘박범훈의 소리연(緣)’ 공연이 4월 19~20일 양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명곡들로 구성된 19일 ‘음악세계’와 20일 ‘해설이 있는 생활속의 불교음악’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들쭉날쭉한 4월 20일 공연되는 국악 교성곡 ‘용성’은 1998년 국립극악관현악단이 초연한 대작으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찬불가를 최초로 작곡한 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다뤘다.

교성곡 ‘용성’은 용성 스님의 수제자 도문 스님의 원작을 토대로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시를 쓰고 박범훈이 곡을 붙인 음악이다.

이 작품은 스님의 삶을 서곡, 서가, 탄생, 어린 시절, 출가, 예불, 시련, 3·1운동, 나라 어디가고, 대각운동, 깨침이여 밝음이여, 불타성지의 구성으로 조망했다. 국립극단 김성녀 예술감독, 유희성 청각문화산업대 교수, 채향순 무용단, 국립극단 및 300여 명이 출연 장엄한 무대를 펼친다.

교성곡 ‘용성’에 앞서 공연되는 조계사

훈성합창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생활속의 불교 음악’도 흥미롭다. 박범훈 교수의 해설이 곁들여지는 이 코너에서는 산사의 봄, 삼세인연, 니르바나, 거룩한 손, 부처님 오신날 등이 공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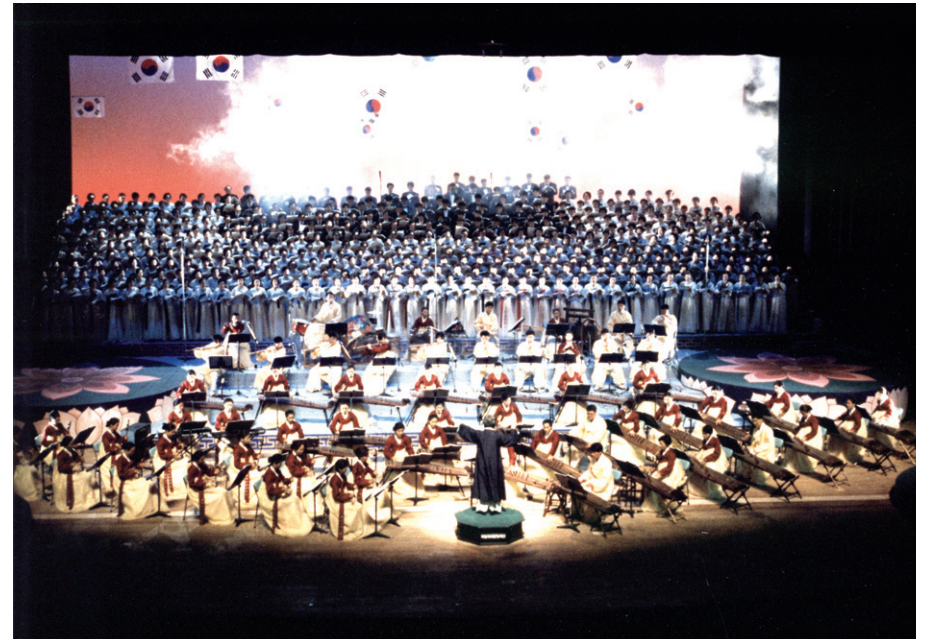
또한 4월 19일 첫날 공연인 ‘박범훈의 음악세계’에서는 산조, 무속, 무용, 아시아 음악 중 대표곡을 엄선한다. 이번 공연에서 창작곡인 25현 가야금을 위한 산조협주곡 ‘경드름’을 가야금 명인 김일련의 손끝

용성 스님 일대기 교성곡으로 펼쳐 해설이 있는 생활속 불교음악 주목 무속음악 결정판 ‘신(神) 시리지도

으로 초연한다.

여기에 무속음악의 결정판으로 알려진 박 씨의 ‘신(神) 시리지도’ 기대할만하다. ‘신내림’, ‘신모듬’, ‘신맛이’로 이루어진 이 시리지는 음악적 완성도와 대중적 인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경기지방의 무속가 락과 황해도도의 무속연희를 소재로 한 ‘신맛이’를 장구 명인 김덕수와 무속 명인 서경옥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그의 딸이자 중국 대표 현악기 열후 연주자인 박두리나와의 협연도 펼쳐진다. 박두리나는 중국 국립중앙음악학원에서 일후를 수학한 재원으로 지휘자와 협연자로 만나는 부녀의 양



‘박범훈의 소리연(緣)’ 공연이 4월 19~20일 양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1998년 ‘교성곡 용성’의 초연 장면.

상함이 기대된다.

무용극도 선보인다. 그는 무용극 ‘도미부인’을 비롯한 15편의 무용음악을 작곡한 무용음악의 대가이기도 하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춘무(春舞)’와 ‘춤을 위한 나나니’를 국립무용단의 춤사위와 경기민요 명장 김영민의 구성진 소리로 꾸민다.

초연곡 ‘댄스스포츠를 위한 관현악’도 주목할 만하다. 평소 댄스스포츠에 쓸 수 있는 우리음악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던 박범훈 씨는 왈츠-탱고-자이브로 구성된 또 하나의 생활 속 국악관현악을 만들어냈다.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스포츠댄스 댄서들의 춤사위는 하나의 불거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음악의 넓은 품을 새삼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번 공연에는 지휘·작곡 박범훈, 지휘 김희경, 연출 손진채(국립극단 예술감독), 안무에 윤성주(국립무용단 예술감독)·채향순(중앙대학교 교수)이 참여한다. 출연진으로는 김성녀, 김덕수사물놀이패, 김영민, 김일련, 서경옥, 유희성, 박두리나, 도신 스님, 최수정, 전영랑, 민은경,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채향순중앙무용단,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조계사합창단, 불광사합창단, 관문사합창단, 약사사합창단, 신홍사 어린이합창단 등이 함께한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02)2280-4114~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최초 불교영화 리메이크 된다

후원 기다리는 박영철 감독의 ‘내마음의 고향’

최초의 한국불교 영화 ‘마음의 고향’을 박영철 감독이 리메이크한다. 합세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한 ‘마음의 고향’은 1949년 개봉됐지만 6.25 이후 필름이 유실됐다가 최근 세상에 다시 알려졌다. 그리고 2013년 박 감독에 의해 ‘내 마음의 고향’으로 재탄생했다.

‘내마음의 고향’은 어려서 절에 버려진 동자승 도성의 이야기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도성의 갈등과 번뇌를 다루는 휴먼감성 드라마다.

박 감독은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나온 필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영화를 리메이크하고자 결심했다고 한다. 현재 삼각산 내원사(주지 정수 스님)에서 촬영을 마치고 후반작업만 남은 상태다. 박감독은 영

화를 찍으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부친 스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출연을 못한다고 해 제작진 중 한 명의 머리를 깎아 단역으로 출연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또 촬영 초반에 주인공 동자승이 머리가

5월 베니스 영화 출품 발원 세계에 불교문화 알리고자

살짝 자란 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촬영에 들어갔다 동자승의 느낌이 나지 않아 3~4회차 분의 필름을 버리고 다시 촬영하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박 감독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제작비의 부족이다. 베니스 국



박영철 감독이 리메이크한 한국 최초의 불교 영화 ‘내 마음의 고향’

제 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싶지만 불교 영화이며 독립영화가 제작비를 지원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박감독은 말한다.

“한국은 1700년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5월까지 베니스 영화에 출

품을 하고 싶지만 후반 작업 비용이 빠듯합니다”

박 감독은 이에 불자들의 후원을 기다린다. 그는 “후원자에게는 특별시사회 초대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원: 우리은행 1002-046-517843 (예금주 박영철)

정혜숙 기자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마하연 투어

| | | |
|-----------------------------------|------------|------------|
|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 성지순례 | 7일 - 139만원 |
|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 성지순례 | 4일 - 99만원 |
|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 성지순례 | 4일 - 109만원 |
|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 성지순례 | 5일 - 119만원 |
|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 성지순례 | 5일 - 119만원 |
| ● 대만 | 정통 성지순례 | 5일 - 119만원 |
| ● 은둔의 나라 라오스 | 성지순례(직항) | 6일 - 139만원 |
| ● 스리랑카 | 정통성지순례(직항) | 7일 - 199만원 |

● 불탑의 나라 미얀마

| | |
|-----------------------------------|------------|
| 양곤/바고/시리암(직항) | 5일 - 99만원 |
| 양곤/바간/헤호 | 5일 - 159만원 |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 6일 - 169만원 |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 7일 - 요금문의 |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